

2019 국별 진출전략

콜롬비아



CONTENTS

2019 콜롬비아 진출전략

I. 시장 전망 및 주요 이슈	3
1. 개요	3
가. 시장 전망	3
나. 주요 경제지표	4
2. 2019년 주요 이슈 및 전망	5
가. 제60대 대통령 선거에 따른 변화	5
나. 세금과 연금 개혁	6
다. 콜롬비아 OECD 가입 승인 및 전망	6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8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8
2. 시장분석	13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13
나. 수출입	14
다. 투자	17
라. 프로젝트	20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협력의제	20
가. 교역	20
나. 투자	22
다. 주요 협력의제	23
III. 진출전략	24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24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5
3. 한-콜롬비아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28
첨부 1. 수출유망 품목	32
첨부 2. 수출유망 서비스	33
첨부 3. 2019년 KOTRA 주요 사업 (잠정)	34
첨부 4. 2019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전시회 캘린더	35



I

시장 전망 및 주요 이슈

1. 개요

가. 시장전망

- 중남미 3위 내수시장
 - 콜롬비아는 인구 약 4,500만 명으로, 중남미 3위 내수시장
 - 안데안공동체, 태평양동맹 등 역내 경제블록 회원국으로, 인구 2억 명 이상의 시장 보유
- 일부 산업기반 보유 및 1차 산업 중심 수출구조
 - 섬유, 플라스틱, 자동차, 타이어, 철강 등의 일부 제조업 기반 보유
 - 화훼, 커피 및 기타 농·목축업 등을 주축으로 한 수출산업 육성정책 진행
- 완제품 중심의 수입시장
 - 제조업 기반이 중간재 위주로 형성되어 소비재 생산기반 취약
 - 내구성 소비재 및 일반 생활소비재의 수입 의존도는 90% 수준
- 국가 신용평가 등급 상향
 - 2018년 Fitch Rating 사는 콜롬비아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 'BBB'로 상향 조정
 - 최근 치안 확보, 경제 개발 본격화, 시장개방 정책으로 중남미 투자 유망국가로 부상
- 2018년 8월 이반 두케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변화 전망
 - 수출기반 확충 및 무역수지 적자 극복을 위한 상업 기업 네트워크 구축 예정
 - 법인세 감면,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 등으로 경제 활성화 시도
- 2019년 7월, 한-콜 FTA 발효 3주년
 - 한-콜 FTA는 산업 제품과 농업 제품의 상호보완적인 교역구조로 진행되고 있음
 - 한국의 FTA 활용 주력 수출은 승용차, 플라스틱 등이며 원유, 커피 등을 수입

나. 시장전망

□ 2019년 콜롬비아 시장 전망

- 경제성장률 : 상승
 - 2018년 콜롬비아는 국내 경제성장률 2.5%로 전망
 -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평균 3% 정도 경제성장률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
 - 국제유가의 하락과 달러 가치화 상승으로 석유 수출에 의존하던 콜롬비아 경제가 하락세를 보임
 - 특히 2016년 부가가치세 개혁으로 침체되었던 민간 소비가 회복되면서 완만한 회복 추세
 - 정부는 16%에서 19%로 바뀐 부가가치세를 통해 국가투자를 위한 예산 확보

[연도별 경제성장률 현황]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경제성장률	1.8	2.5	3.1	2.8	3.0	3.1

자료원: Connect IHS

- 산업: 상승
 - 이반 두케 신정부의 법인세 감면 정책과 오렌지 경제 추진으로 조제업과 IT 분야 지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또한 OECD 가입과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힘입어 콜롬비아 경제 발전에 순기능을 하는 외국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다. 주요 경제지표

주요지표	단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인구	만명	4,712	4,793	4,847	4,902	4,956	49,970	50,300
명목GDP	십억 달러	380.2	378.3	291.5	282.4	314.5	356.7	362.2
1인당 명목GDP	달러	8,030	8,068	7,939	6,038	6,409	7,210	7,297
실질성장률	%	4.9	4.4	3.1	2.0	1.8	2.5	3.1
실업률	%	9.7	9.1	8.9	9.2	9.4	9.7	10.1
소비자물가상승률	%	1.9	3.7	6.8	5.7	4.01	3.1	3.0
재정수지(GDP대비)	%	0.1	-1.8	-3.4	-2.4	-1.8	-2.4	-1.6
총수출	백만 달러	58,821	56,899	38,275	33,381	37,770	39,300	41,549
(對韓 수출)	백만 달러	229.9	519.6	229.3	402	457	653	690
총수입	백만 달러	59,937	61,538	52,050	43,239	46,075	46,200	47,592
(對韓 수입)	백만 달러	1,296	1,500	1,155	888.6	791.5	713	734
무역수지	백만 달러	-1,116	-4,640	-13,774	-9,858	-8,305	-6,900	-6,043
경상수지	백만 달러	-12,503	-19,611	-18,641	-12,237	-11,416	-10,500	-9,900
환율(연평균)	US\$	1,927	2,392	3,149	3,001	3,043	2,948	3,115
외국인직접투자	백만 달러	16,209	16,125	11,132	13,687	13,924	14,522	15,147

주: 2018년 추정치, 2019년 전망치

자료원: 콜롬비아 중앙은행(Banrep), Economist Intelligence Unit, IHS Connect, Citi Bank Research

2. 2019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이반 두케 대통령 당선으로 새로운 정책과 변화가 예상됨
- 신정부의 대대적인 세금 개혁 시작
- 콜롬비아 OECD 가입 승인에 의한 경제 변화 전망

가. 제60대 대통령 선거에 따른 변화

□ 이반 두케 대통령 당선에 따른 정책변화

- 새 정부 출범으로 정치 및 경제의 격변이 예상됨
 - (이반 두케 당선) 2018년 8월 7일부터 우익과 보수성향의 이반 두케 정부 출범.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새로운 정책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
 - (평화협정실행) 이전 산토스(Santos) 정부가 수행한 무장반군(FARC)과의 평화협정 관련 내용을 실행할 것으로 예상
 - (제2 평화협정) 다른 무장반군인 국민해방군(Ejercito de Liberacion Nacional, ELN)과 평화협정 진행 계획

□ 심화되고 있는 좌파와 우파의 정치적 대립

- 2018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 좌파와 우파의 정치적 대립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이 공식화됨
 - 선거에 등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던 우파, 보수성향의 이반 두케가 우파의 상징적인 인물인 제58대 전 대통령 알바로 우리베(Alvaro Uribe)의 지지를 받으면서 후보 등록. 전체적인 좌파, 중도좌파 성향의 후보들을 제치고 우파의 적극적인 지지로 제 60대 대통령에 당선됨

[현 콜롬비아 대통령에 대한 세부사항]

Ivan Duque Marquez(이반 두케 마르케스)



[생년월일]

1975년 8월 1일생(만 43세)

임기기간 : 2018. 8~2022. 6

[약력]

1998~2002년 제57대 대통령 안드레스 파스트라나 시절 재무부 근무

2001~2013년 미주개발은행 근무

2002~2010년 제58대 대통령 알바로 우리베의 조연자

2014~2018년 민주당 상원의원

[특이사항]

변호사 출신

역대 대통령 중 최연소 대통령

제58대 대통령 알바로 우리베의 최측근으로 우리비스타(Uribista)라는 별명이 있음.

자료원: 콜롬비아 각종 언론사 공식 홈페이지

나. 세금과 연금 개혁

□ 이반 두케 새 정부 계획

- (세금개혁) 2018년 대선 당시 이반 두케의 가장 큰 공약은 기업 세금 감면
 - 현재 35%인 법인세를 2% 감면한 33%정도로 책정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
 - 법인세 감면 시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 물품이 추가적으로 생길 것으로 예상
 - 세금 개혁의 최종 목표는 법인 소득세 제로화
- (연금개혁) 국채를 감당하기 위해 연금가입 유도
 - 공식적으로 콜롬비아는 재정적자를 감당할 예산이 없다고 발표
 - 해결방법으로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연금제도의 개혁 수립 예정

다. 콜롬비아 OECD 가입 승인 및 전망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콜롬비아는 2011년부터 OECD 가입을 위해 준비해옴
 - (최종 승인) 콜롬비아 산토스 전 대통령은 2018년 5월 30일 프랑스 파리에서 OECD 가입 합의문에 서명
 - (가입절차) 현재 가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나 2018년 8월 이반 두케 정부 출범으로 계획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

□ OECD 가입 승인에 따른 향후 콜롬비아 전망

○ 분야별 성장 기대

- (수출입) 외국기업의 콜롬비아 진출 및 수출입시장 확대 전망. 또한 OECD 37개 회원국과의 관계를 긴밀히 함으로써 세계 경제 변화에 선제적 대응 가능
- (투자) 이번 OECD 가입에 힘입어 콜롬비아 경제 발전에 순기능을 하는 외국인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특히 건설업, 농업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또한 콜롬비아는 모든 분야의 제조 기반이 열악한 상황으로, 외국자본을 통해 제조기반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됨
- (중소기업) OECD 가입에 따른 경제 기반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투자환경 개선 정책 추진 계획
- (소비자 중심의 기업환경 조성) 콜롬비아 내 외국기업의 진출 확대에 따라 독과점 체제가 해소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상품이 개발될 것으로 보임. 이로 인해 기업 간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져 소비자 중심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

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두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2개 분야에서 큰 격변이 예상. 친 기업 정책 추진으로 인한 세금 개혁과 문화, 예술 및 제 4차 기술 혁명에 기반을 둔 오렌지 경제 현실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가. 정치 환경

□ 콜롬비아 정치 환경

정부형태	대통령제(4년 중임제)
국가원수	이반 두케 마르케스
입 법 부	양원제(상원108석, 하원166석)
주요 정당	U(우)당, 보수당, 자유당, 민주당, 급진변화당, 녹색당 등
정부성향	자유민주주의, 친미우익 성향

○ 우파와 보수의 승리

- 이반 두케의 승리로 인해 우파성향의 정치가 예상
 - * 제58대 우리베 대통령, 제59대 산토스 대통령, 현 대통령까지 우파 출신
- 제59대 대통령 후안 마누엘 산토스의 경우 제58대 대통령 알바로 우리베의 측근으로 중도우파였으나 당선 이후 알바로 우리베와 다른 성향인 중립 정치 성향을 보임
- 현 이반 두케 대통령도 후안 마누엘 산토스와 비슷한 중립정치를 이어나갈지, 반대로 우파 성향을 가진 알바로의 정치 경력을 이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됨

[상·하원 의원석 현황]

상원의원석

19석 민주당
16석 급진변화당
15석 보수당
14석 자유당

하원의원석

석 자유당
32석 민주당
30석 급진변화당
25석 U당

* 민주당, 녹색당, 무소속은 좌파성향으로 지난 경선에서 좌파후보 구스타보 페트로를 지지함

* 중립과 우파성향이 대부분의 하원의원석을 차지함

자료원: 콜롬비아 국가기록원(Registraduria nacional de estado de civil)

나. 경제 환경

□ 콜롬비아 경제 환경

○ 소비

- (2018년 민간소비 완전한 회복세) 제조업 고용여건 호전, 소비심리 개선, 저소득층의 세금 지원에 따른 완전한 가처분소득 개선 가능성 등 일부 소비 제약요인이 상존하지만 상위 요인들로 회복세가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임
- (2019~2021년 민간소비 전망) 정부의 금리인하 정책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으로 연평균 약 2.83%의 성장 전망

[연도별 민간소비 지출 증감률]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증감률	1.5	1.7	2.3	2.6	3	2.9

주: 2019년, 2020년, 2021년 전망치

자료원: Economist Intelligence Unit

○ 환율

- 2014년 하반기부터 국제유가 급락 및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콜롬비아 페소화가 계속해서 상승 중
* 2016년 환율 1달러당 3,432페소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가 재상승 중

[달러 대비 페소화 환율 변동 추이]

(단위: COP)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11	2019
1,926	2,392	3,149	3,432	2,985	2,934	3,115

주: 2019년은 전망치

자료원: 콜롬비아 중앙은행(Banrep)

○ 인플레이션

- (인플레이션의 위험성 감소) 콜롬비아 통계청(DANE)에 의하면 2017년에 집계된 인플레이션 발생 위험성은 3.9%였으나 2018년은 3.1%로 감소함

[연간 물가상승률]

(단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물가상승률	5.7	3.9	3.1	3.0

자료원: Citi Bank Research

○ 콜롬비아 부패 환경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2017년 국가별 부패인식 지수에서 콜롬비아는 전체 180개국 중 96위(뉴질랜드 1위, 한국 51위)
-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2017~2018년 137개국의 글로벌 경쟁력 지수에서 콜롬비아는 66위 기록. 그 이유는 적자와 물가상승 그리고 부정부패 때문임

○ 비즈니스 환경

- IMF에 의하면 콜롬비아의 2018년 경제성장률은 2.7%로 예상되며, 2019년에는 3% 이상으로 예상
- World Bank Doing Business에 따르면, 콜롬비아는 세계 190개국 중 비즈니스 환경 59위

다. 산업 환경

□ 콜롬비아 대표 산업

- (산업별 GDP 비중) 2018년 2/4분기 기준 주요 산업은 공공서비스(27.2%), 유통/요식/호텔(18.5%), 금융서비스(15.2%), 제조업(13.2%) 분야 증가
 - 특히 제조업의 경우 산토스 전 대통령의 부가가치세 개혁으로 부가가치세는 오르고, 기업소득세는 소폭 하락
 - 제조업 수출 분야에 강세를 보이는 콜롬비아 기업들은 그 기회로 수출량이 증가
 - 유통/요식/호텔 분야의 경우 물가 상승률이 안정화되면서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개선되어 점차 소비활동이 회복되고 있음

[콜롬비아 주요 산업별 GDP 대비 비중]

(단위: %)

산업	2015	2016	2017	2018. 2분기
농축수산업	6.6	7.1	6.9	7
광업	7	5.9	5.8	5.5
제조업	12.5	12.6	13.2	13.2
전기/가스/수도	3.8	3.9	3.3	3.2
건설업	10.2	10.2	7.7	7.1
유통/요식/호텔	13.4	13.7	18.4	18.5
물류/통신	7.2	7	3.1	3.1
금융서비스	21.1	21.4	15.2	15.2
공공서비스	18.2	18.2	26.3	27.2

자료: 콜롬비아 중앙은행(Banrep)

라. 정책·규제 환경

□ 콜롬비아 주요 경제 정책

- 세금개혁 정책(Plane Reforma Fiscal e Impuesto)
 -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세금개혁 추진 예정
 - 기업의 세금을 감면하여 생산성과 고용을 증진하겠다는 표면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소비자와 노동 계급에 대한 소득세금이 증가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부과 품목이 더 많아질 것
 - 한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현지회사의 경우 세금이 낮아지면 수입량을 늘릴 가능성이 있음
- 오렌지경제(Economia Naranja 2019~2022)
 - 이반 두케 신정부의 창조 경제와 스마트시티를 위한 새로운 투자계획
 - 문화 콘텐츠와 관계있는 건축, 공연, 예술, 디자인 등과 제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모바일·사물 인터넷, 에너지 저장장치, 3D 프린팅 등도 해당
 - 콜롬비아 관광부 산하 수출관광해외투자진흥청(Procolombia) 플라비아 산토로(Flavia Santoro) 청장은 콜롬비아 최대 경제일간지 포르타폴리오(Portafolio)지와 인터뷰에서 오렌지 경제와 관련해 정부의 목표, 진흥청의 업무 현황, 콜롬비아 내 수출 유력 부문에 대해 설명
 - (목표) 물리학, 생물학, 디지털 및 창조성이 융합되는 제4차 산업 내 다양한 품목을 60개국 이상으로 수출하는 것이 목표임
 - (진흥청의 업무 현황) 진흥청은 전국의 수출업자들을 대상으로 오렌지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또한 정보통신부, 문화부와 공동으로 콜롬비아 연극, 음악 분야의 국제화를 위해 주요 예술인, 국제 이벤트, 해외 시장 등을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 중임
 - (수출 유력 부문) 소프트웨어, 애니메이션,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비디오게임 부문의 수출이 매년

30% 이상 증가하고 있음

- (한국과 경제 협력 가능성 제시) 스마트화의 일환으로 전자 조달 시스템, ICT, 테크노 파크 등 MOU 체결로 관련 품목의 한국기업 진출이 용이
- 이밖에도 첨단의료, 한류를 활용한 문화 콘텐츠, 생명공학 등 한국의 기술전수와 기업 파견으로 관련 산업 협업 가능

□ 콜롬비아 주요 개발정책

- 지역개발정책(Planes de Ordenamiento Territorial 2009~2023)
 - 콜롬비아 국토교통위원회가 진행하는 장기 인프라 프로젝트
 - 전국 도로, 학교, 병원 등의 건설 목적
 - 앞으로 4년간 사용할 예산은 GDP의 8.5%(약 3천만 달러) 정도로 예상
 - 현재 전국 도로망 정비 산업이 진행 중이며, 이후 순차적으로 학교와 병원을 건설할 예정
- 도로인프라 확대 정책(Vias 4G 2014~2020)
 - 총 투자금액은 GDP의 1.2%로 현재 프로젝트 실행자금 결제 완료
 - 고속도로(14,000km)의 건설로 육로 운송시간 30% 단축 기대
 - 현재 전체 계획 67%에 해당하는 육로 건설 및 정비 완료

□ 수입규제

- 사전 수입 허가 규제
 - (규제 대상제품) 원산지에 상관없이 2013년 법규 0925조에 따라 각 품목별로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하여 수입조건을 충족해야 함
- 수입규제 품목
 - 황인 및 질산암모늄 등 위험 품목은 자국민 안전 보호를 위해 영구 수입 규제 제품으로 지정
 -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사전 수입신청을 통해 수입 허락
 - * 수입금지 품목 : 무기류, 폭발성 물질, 환경 유해 물질, 마약 제조 원료

[영구 수입규제 품목(HS Code)]

HS Code	품명	HS Code	품명
0207.13.0000	냉동육류	2904.90.2000	팬스리이트
0207.54.0000		2904.90.0000	니트로크로트 톨루엔
0207.14.0000		3102.30.0000	질산암모늄
1602.31.1100	칠면조 반조리식품	3102.50.0000	질산나트륨
2602.00.0000	마그네슘 광물	3102.60.0000	질산칼륨

HS Code	품명	HS Code	품명
2707.20.0000	톨루엔	3912.20.0000	질산첨유소
2804.70.0020	황인	3601 류 전체	화약
2834.29.0010	질산 암모늄	3602 류 전체	폭약
2834.21.0000	질산 칼륨	3603 류 전체	도화선, 도폭선, 뇌관 등
2834.29.0090	질산 모노메틸미아	84 류 일부	중고 중장비, 기계류
2929.19.1000	염소산 칼륨	87 류 일부	중고 자동차
2904.20.1000	니트로 톨루엔	8905100000	마약
2904.20.9000	니트로 셀룰로스	93 류 전체	무기, 총포탄 및 부분품
2904.90.0000	니트로크로트 톨루엔	95 류 일부	무기성 장난감
2904.90.1000	니트로크로트 벤젠		

자료원: 콜롬비아 관세청(DIAN)

2. 시장 분석

- 콜롬비아는 인구 4,500만 명의 내수시장을 보유한 중남미 3대 시장이며 2016년 말 반군과의 평화협정 최종 타결을 통해 콜롬비아 정부의 적극적인 국가 개발, 시장 개방정책 기조 및 한-콜 FTA에 힘입어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투자 진출 확대가 예상됨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중남미 인구 기준 제3위 내수시장

- 인구 약 4,500만 명의 내수시장을 보유한 중남미 3대 시장(1위 브라질, 2위 멕시코)

[중남미 국가 인구 수 상위 5개국]

(단위: 명)

순위	국가명	인구수
1	브라질	202,450,649
2	멕시코	122,916,000
3	콜롬비아	45,520,000
4	아르헨티나	42,890,368
5	페루	31,660,000

자료원: 국제통화기금(IMF)

- 안데스공동체, 태평양동맹 등 역내 경제블록 회원국으로 인구 2억 명 이상의 거대시장 보유
- 일부 산업기반 보유
 - 섬유, 플라스틱, 자동차, 타이어, 철강 등의 일부 제조업 기반 보유
 - 화훼, 커피 및 기타 농, 목축업 등을 주축으로 한 수출산업 육성정책 강화

- 완제품 중심의 수입시장
 - 제조업 기반이 중간재 위주로 형성되어 소비재 생산기반 취약
 - 전자제품을 비롯한 내구성 소비재 및 일반 생활소비재의 수입 의존도는 90% 수준
- 빈부격차로 소비시장 양극화
 - 지역별, 계층별 소득격차가 심각하며 중상류층과 저소득층 시장이 양분화
 - 소득계층별로 생활 및 소비 패턴에 뚜렷한 차이
- 지하경제에 대한 높은 의존도
 - 2018년 상반기 기준 전체 수입품의 30% 내외가 밀수품으로 추정
 - 전자제품, 의류, 주류 등이 주요 밀수품이며 주요 도시마다 대규모 밀수시장 형성
- 한국기업 및 브랜드 인지도
 - 삼성, LG, 현대, 기아 등 우리 기업의 활약으로 인지도 및 이미지 대폭 개선
 - 가격경쟁력에서 중국산에 뒤처지는 경향이 있으나 품질에서 선호도가 높은 편

나. 수출입

□ 최근 수출입 동향

- 미국 및 유럽 국가에 대한 높은 교역 의존도로 해당 국가 경기변화에 민감
 - 콜롬비아 정부는 한-콜 FTA에 이어 터키, 일본 및 중국과의 FTA를 추진 중으로 향후 아시아 국가와의 교역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주요 10대 국가별 수출(FOB)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수출(FOB)							
2017				2018. 1~10			
순위	국명	금액	점유율	순위	국명	금액	점유율
1	미국	11,406	26.11	1	미국	10,611	25.69
2	중국	8,309	19.02	2	중국	8,162	19.76
3	멕시코	3,324	7.61	3	멕시코	3,178	7.70
4	브라질	2,198	5.03	4	브라질	2,243	5.43
5	독일	1,808	4.14	5	독일	1,804	4.37
6	콜롬비아*	1,705	3.90	6	프랑스	1,365	3.31
7	일본	1,168	2.68	7	일본	1,004	2.43
8	인도	997	2.28	8	인도	996	2.41
9	프랑스	925	2.12	9	콜롬비아*	937	2.27
10	스페인	913	2.09	10	스페인	780	1.89
11	한국	746	1.71	14	한국	638	1.55
총 수출액		48,683	100	총 수출액		41,299	100

주: *는 콜롬비아 자유무역지구

자료원: SICEX

[주요 10대 국가별 수입(CIF)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수입(CIF)							
2017				2018. 1~10			
순위	국명	금액	점유율	순위	국명	금액	점유율
1	미국	12,002	26.23	1	미국	3,227	25.82
2	중국	8,745	19.11	2	중국	2,336	19.76
3	멕시코	3,436	7.51	3	멕시코	1,861	7.60
4	브라질	2,285	4.99	4	브라질	1,387	5.42
5	독일	1,873	4.09	5	독일	1,055	4.32
6	콜롬비아*	1,726	3.77	6	프랑스	1,041	3.22
7	일본	1,231	2.69	7	일본	956	2.45
8	인도	1,042	2.28	8	인도	828	2.41
9	스페인	967	2.11	9	콜롬비아*	713	2.22
10	프랑스	948	2.07	10	스페인	700	1.92
11	한국	791	1.73	14	한국	673	1.56
총 수출액		45,767	100	총 수출액		43,139	100

주: *는 콜롬비아 자유무역지구

자료원: SICEX

○ 수출입 품목

- (수출) 2018년 10월 기준 34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 주요 품목은 원유(29.48%), 석탄(13.48%), 항공기와 커피 원두(4.82%) 등
- (수입) 2018년 10월 기준 43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75% 증가. 주요 품목은 항공기(3.60%), 통신기기(3.42%), 기타 경질 석유(2.26%) 등

[콜롬비아 10대 수출입 품목(2018년 10월)]

(단위: 백만 달러, %)

수출(FOB)				수입(CIF)			
순위	품목	금액	비중	순위	품목	금액	비중
1	원유	10,315	29.48	1	항공기	1,554	3.60
2	석탄	4,716	13.48	2	통신기기	1,477	3.42
3	항공기	1,687	4.82	3	기타 경질 석유	976	2.26
4	커피원두	1,685	4.82	4	옥수수	826	1.92
5	금	902	2.58	5	대형차량	772	1.79
6	바나나	642	1.84	6	엔진오일	706	1.64
7	숯	630	1.80	7	의약품	690	1.60
8	연료	587	1.68	8	텔레비전 부품	523	1.21
9	반동 엔진	572	1.63	9	식물성 기름	463	1.08
10	경유	565	1.62	10	컴퓨터부품	451	1.05

자료원: SICEX

□ 다양한 무역협정 체결

○ 안데스공동체(Andean Community)

- 회원국 : 볼리비아, 에콰도르, 페루, 콜롬비아
- 설립 목적 : 관세동맹 구축 및 공동시장 형성을 위한 점진적 지역통합

* 회원국 간 경제·사회적 협력을 통해 성장 촉진 및 지역주민 생활수준 지속적 향상

○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 회원국 : 콜롬비아, 페루, 멕시코, 칠레
- 설립 목적 : 경제발전을 위한 동맹(남미공동시장과는 반대되는 개방주의 동맹)
- 한국도 태평양동맹의 준회원 가입 신청

○ FTA

- 회원국 : 12개국과 FTA 체결(파나마, 이스라엘 2개국 체결 보류 중)
- 진행상황 :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한국과 FTA 체결. 이반 두케 대통령은 당분간 새로운 FTA 체결은 없을 것이며, 이미 체결된 국가들과의 조약도 콜롬비아에 도움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다시 재검토하겠다고 발표

□ 관세, 비관세 장벽

○ 관세장벽(반덤핑)

- 콜롬비아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16개 품목에 반덤핑 관세 적용
- * 한국의 경우 2건(무가소폴리염화 비닐, 가소제 DOP)에 반덤핑 관세 적용 중

【 국가별 반덤핑 규제품목 】

국가명	반덤핑 규제품목 및 관련 사항
중국	튜브, 체인, 샵, 펌프, 신발덮개, 와이어, 타이어, 버스, 또는 트럭용 타이어, 목재보드, 아연 철판, 구연산, 구연산나트륨, 알루미늄 압출 제품, 도자기류, 무가소폴리염화 비닐
한국	무가소폴리염화 비닐, 가소제 DOP
멕시코	가소제 DOP
대만	무가소폴리염화 비닐
베네수엘라	알루미늄 압출 제품
인도	고압 라미네이트

자료: 콜롬비아 관세청(DIAN)

○ 비관세장벽(기술장벽, 위생검역)

- (위생 증명서) 콜롬비아 식약청(INVIMA)과 콜롬비아 농업협회(ICA)는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주방용품, 살아 있는 가축 등에 해당되는 제품에 대해 동 기관에서 위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제
- (기술규정: RETIE, RETIRAP, 라벨링 요건: RETIQ) 콜롬비아 에너지부(MINMINAS)는 전기, 전자제품 및 조명시설에 대해 표준 및 인증과 같은 절차를 통해 규제 중

[콜롬비아 비관세장벽 유형]

종류	SPS		TBT		
증서명	INVIMA	ICA	RETIE	RETIQ	RETIRAP
주관처	식약청	농업협회 (농림부 소속)	에너지부		
품목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의약품	살아 있는 가축	전기 /전자제품	냉각, 냉방 시스템이 장착된 가전제품/ 전기·전자제품	조명 및 조명시설

자료: 콜롬비아 식약청, 에너지부, 농림부

□ 최혜국 규제(2016년)

- 콜롬비아 국내기업 보호를 위한 규제
 - 2016년부터 적용된 규제로 한-콜 FTA 품목과 달리 취급되며, 현지에 해당 품목 제조 기업이 있는 경우 한국에서 같은 물품을 수입할 시 관세가 적용됨

[최혜국 규제품목]

품목	HS Code	일반관세	한국에 NMF 적용관세	면세적용	관세 철폐기간
Copolymers of plastic chloride	39043090	0%	4.0%	O	3년 후 0%
Rolled steel products	72092600	0%	4.0%	O	3년 후 0%
Thick textiles in oil garments	59114000	0%	6.0%	X	검토 중
Apparatus Television receivers	8528720000	5%	9.5%	O	4년 후 0%
Plasma screen devices	8528720020	5%	9.5%	O	4년 후 0%
Electric Tractor	87091100	0%	4.5%	O	3년 후 0%
Motor Tractor	87091900	0%	4.5%	O	3년 후 0%
Medical device LED screen	94051010	0%	4.0%	O	3년 후 0%

자료원: 콜롬비아 산업자원부(MINCIT)

다. 투자

□ 국가 비즈니스 환경 등급

- 2018년 글로벌 경쟁력 지수에서 콜롬비아는 66위, World Bank 비즈니스 환경 지수 59위를 차지했지만, 최근 이반 두케 새 정부 출범 이후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으므로 향후 순위가 변경될 것으로 전망
- 치안 확보, 경제 개발 본격화, 시장 개방, 친기업주의 등의 정책으로 중남미 투자유망 국가로 부상

□ 국가 신용등급

- 국제신용평가 3사에서 모두 투자 적격 등급을 유지

[국제 신용 평가 기관별 콜롬비아 신용등급 현황]

	2016	2017	2018.6
OECD	4	4	4
Moody's	Baa2	Baa2	Baa2
Fltch	BBB	BBB	BBB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중남미 투자환경 현황]

국가	비즈니스 환경 순위(중남미)	비즈니스 환경 순위(세계)
멕시코	1	49
페루	2	58
콜롬비아	3	59
코스타리카	4	61
푸에르토리코	5	64
자메이카	6	70
엘살바도르	7	73
파나마	8	79
산타 루시아	9	91
우루과이	10	94

자료원: Economist Intelligence Unit, 콜롬비아 중앙은행 (Banrep)

□ 콜롬비아 투자진출 동향

- 1990년대 경제 자유화 이후 꾸준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장려
 -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대해 개방적인 정책 보유(국방 및 핵폐기물 처리 사업 제외)
 - * Decree 2080/2000 :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자국기업과 동등한 법 적용
- 향후 2018~2021년 콜롬비아 내 외국인직접투자 금액 연평균 150억 달러 전망(투자분야 : 에너지(원유 및 가스), 제조업, 금융 분야 / 투자국 : 미국, 파나마, 영국 등)
- 콜롬비아 투자자 보호를 위해 펀드매니저 자격 규제
 - 주식시장 내 투명성,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을 개정해 펀드매니저 자격을 규제하기로 결정
 - 국가 전문 주식시장 등록 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어야 펀드매니저 자격을 가질 수 있음

□ 주요 투자 산업

- 석유, 광물, 유통/요식/호텔 분야에서 큰 폭으로 투자 증가

[주요 산업별 콜롬비아 외국인직접투자(FDI)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산업별	2016	2017	2018 2Q
석유산업	2,386	3,135	1,425
농림수산업	299	241	110
광업	-125	953	1,039
제조업	1,839	2,523	685
전력/가스/수도	3,620	474	166
건설	620	424	335
유통/요식/호텔	903	979	654
물류/교통/통신	1,495	3,136	284
금융/부동산	2,461	1,662	918
공공서비스	353	398	182
총 투자유치액	13,850	13,924	5,798

주: 2018년 2/4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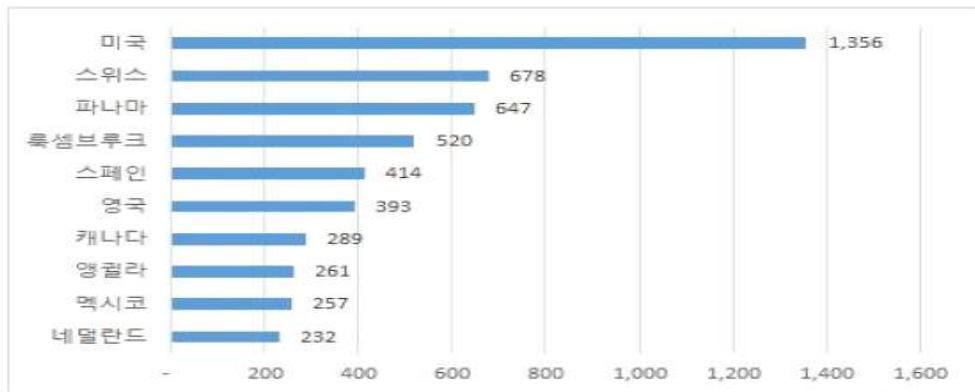
자료원: 콜롬비아 중앙은행(Banrep)

□ 주요 투자국가

- 2018년 2/4분기 기준, 주요 투자국은 미국(135만 달러), 스위스(6억 7천만 달러), 파나마(6억 4천만 달러) 등

[對콜롬비아 국별 투자현황]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콜롬비아 중앙은행(Banrep)

□ 투자진출 진입장벽

- 방송통신업은 외국인 지분율을 40%로 제한
 - 보험, 금융업, 광업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의 사전허가 필요
 - 군사 및 민간/도시 보안에 대한 투자 불가

라. 프로젝트

□ 주요 프로젝트 정보

- 엘도라도 제2공항 건설(2018~2024년)
 - (위치) 보고타(Bogota)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한 모스케라 쿤디나마르카(Mosquera Cundinamarca) 지역에 제2의 엘도라도 공항 건설
 - (비용) 연구 초기단계 예산액 10억 달러
 - (목표) 관광객 유치 및 늘어나는 공항 이용 인구수용
 - * 프로젝트 공개입찰 관련 정보는 2018년 하반기 공개 예정
- 장기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2018~2035년)
 - (비용) 예산액 700억 달러
 - (프로젝트 내용) 도로 12,500km, 철도 1,600km, 31개 항구 건설, 공항 확장 프로젝트 등 포함
 - 정부는 프로젝트 예산액 확보를 위해 국내외 투자유치 노력 중
 - 국제 원유가 변동 및 콜롬비아 폐소화의 환율 변동 등 국내외 투자자들의 주요 고려 요소
- 4G 프로젝트 Via 4G(2014~2020년)
 - (비용) 예산액 160억 달러
 - (프로젝트 내용) 도로신설 8,170km, 기존 도로정비, 150여개 터널 건설 등
 - 교통개선과 물류비용 절감 및 물류량 증가, 고용 창출이 목적
 - 현재 예상 프로젝트의 약 30% 완료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협력의제

가. 교역

□ 한-콜롬비아 교역현황

- 한-콜롬비아,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2016년 7월 15일 FTA 발효
- 2018년 8월 한국 무역수지 흑자
 - 수출 5억 7,900만 달러, 수입 5억 2,700만 달러, 총 5,200만 달러의 무역 흑자 달성
 - 콜롬비아 경기회복으로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 수입은 9.6%로 상승

[한국 對콜롬비아 연도별 수출입 및 무역수지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2013	1,342	-8.54	206	-50.19	1,135
2014	1,509	12.45	607	194.12	901
2015	1,128	-25.21	323	-46.76	805
2016	853	-24.43	432	33.77	420
2017	813	-4.63	651	50.5	162
2018. 8	579	7.25	527	9.63	52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對콜롬비아 수출현황

- 2018년 8월 기준 주요 수출품은 차량/철도 부품(28.8%), 전자기기(14%), 플라스틱(13.1%) 상위 3위 제품이 전체 56% 이상 차지
 - 주요 수출상품은 자동차부품, 보일러, 전자기기 등이며 콜롬비아의 제조업 기반 취약 및 기술 부족으로 기술집약적인 완성품 및 자본재가 주종을 이루고 있음
 - 자동차 부품이 약 34% 점유 및 기타 화학제품, 유기화학물질 등이 약 10% 내외로 일부 분야에 집중되는 양상 지속

[한국의 對콜롬비아 10대 수출품목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명	2017		2018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차량/철도 부품	278	-10.6	166	-15
2	전자기기	58	15	83	110
3	플라스틱	103	3.8	76	8.8
4	보일러	95	1.2	47	-4.7
5	철강	58	-24	44	30
6	화학공업 생산품	32	5.6	29	51
7	고무	46	9	31	-9
8	유기 화학 물질	24	-25	14	-0.2
9	광학/의료용 기기	29	30	19	10
10	의료용품	14	23	11	-7

주: 2018년 8월 기준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對콜롬비아 수입현황

- 한국의 콜롬비아 10대 수입품목은 1차 상품(원유, 커피, 화훼)이 대부분임
 - 2018년 8월 기준, 원유 수입액(약 3억 6천만 달러)은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 커피 수입액은 6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6% 감소

[한국의 콜롬비아 10대 수입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명	2017		2018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원유	378	95	365	23
2	커피	102	25	61	-6
3	구리 및 합금	75	44	33	-30
4	철강	38	-18	30	4.8
5	화학공업 생산품	10.4	-6	5	23
6	알루미늄	10.1	10.9	6	-4
7	기타 식용 제품	8.5	-2.9	5	-10
8	화훼	7.7	27	5	7
9	동물성 생산품	4	9-318	3	33
10	원피	1	-5	1	66

주: 2018년 8월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나. 투자

□ 한-콜롬비아 투자교류 현황

- 콜롬비아 분야별 투자 통계

[연도별 콜롬비아 투자현황]

(단위: 천 달러)

연도	투자금액
2012	91,699
2013	60,664
2014	19,250
2015	12,264
2016	3,512
2017	10
2018. 4	1,383
총계	188,782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 우리 기업 투자진출 동향
 - 2017년 12월 기준 콜롬비아 내 20여개가 진출해 있으며, 대부분이 현지법인 형태로 운영 중

□ 우리 기업의 투자진출 성공사례

- 한국기업의 콜롬비아 과일 생산 투자
 - 한국기업 R사의 경우 과일과 화훼 부분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 콜롬비아 과일 용과를 생산하고 가공하여 일본, 미국, 한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투자, 현재 판매량 증가로 투자 성공

□ 우리 기업의 투자진출 실패사례

- H사의 가스 생산 투자
 - H사는 가스 생산 프로젝트인 부에나벤투라 태평양 가스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를 위해 공개입찰을 시도하였음
 - 그러나 입찰 후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전체 입찰이 취소되고 프로젝트 재검토가 결정되면서 결과적으로 투자 실패

다. 주요 협력의제

□ 해외건설협회와 콜롬비아 건설협회의 MOU체결을 활용한 사업 협력(2018.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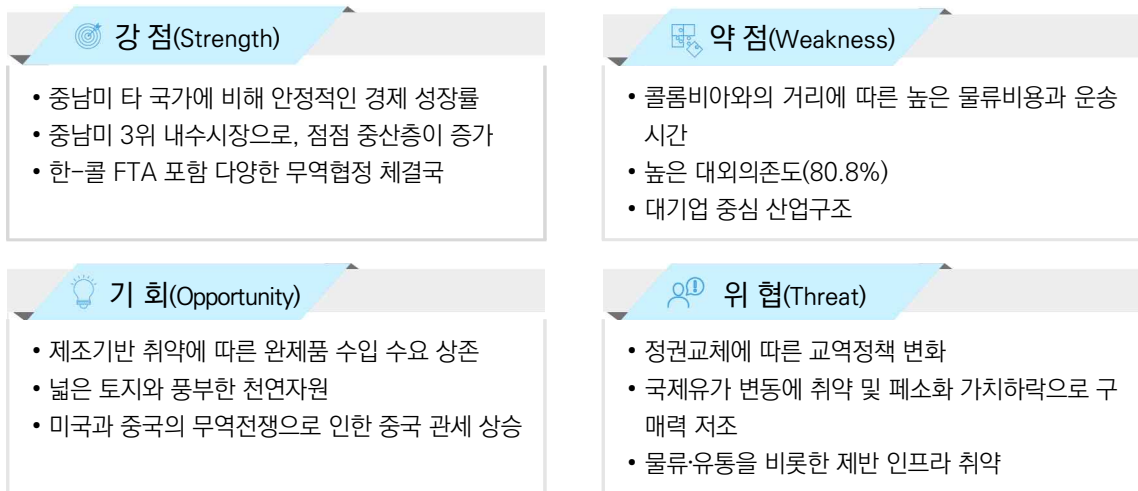
- 보고타 메트로 사업
 - (규모) 약 45억 달러
 - (목표) 보고타 도심에 메트로를 건설해서 교통체증을 해결하고 주변 도심 간의 이동을 쉽게 하는 것이 목표
 - (한-콜 건설협회 MOU 체결) 2018년 9월 19일 한국해외건설협회와 콜롬비아 건설협회의 MOU 체결
 - (체결 내용) 콜롬비아 건설협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 100만 호 건설과 보고타 메트로 1호선 사업에 한국기업이 공동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
- 보고타시 7번가 트란스 밀레니오(Trans Milenio: 굴절버스) 건설
 - (위치) 주요 비즈니스 구역과 주거지, 대학가가 포함된 7번가(Cra 7ma)
 - (목적) 7번가의 극심한 교통난을 해결하고 주변 도심 간 빠른 연결이 목표
 - 2018년 10월부터 건설 공개 입찰 시작
 - 연말까지 입찰 가능하며 2019년 초 최종 입찰자 공고 예정

III 진출전략

- 콜롬비아 정부의 다양한 경제 개발 프로젝트로 외국인 투자 자본을 활용해 중남미 내 주요 경제시장으로 성장할 전망
- 2018년 제60대 대선 후 신정부 출범에 맞춰 신규 프로젝트 및 유망분야에 대한 양국 기업협력에 대한 활용 방안 모색 필요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콜롬비아 지역 SWOT 분석]



전략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을 기회로 삼아 중국 기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던 수출품목에 대한 경쟁 가능성이 커짐	FTA 관세혜택을 통한 낮은 가격과 좋은 품질
ST 전략 (강점 활용)	• 무분별한 난민 유입으로 취약해지는 치안과 잦은 교통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의 다양화된 보안 물품을 수출품으로 공략	차량용 블랙박스, 카메라, 고화질 CCTV 등 치안 관련 품목 시장 진출
WO 전략 (기회 포착)	• 새 정부의 실행계획인 기업 세금 감면을 이용한 현지화 전략	현지 사무소 혹은 공장 지사화를 통한 콜롬비아 진출
WT 전략 (위험 대응)	• 원유 가격에 따른 환율 변동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 수립	현지화를 통해 물류비용 절감 및 기타 비용 절약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가. 평화협정 이후 다분야 지원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사업을 활성화 중
 - * 특히 인프라 구축과 농업, 관광, 치안 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 위 분야 개선을 위해 다양한 품목 수입 전망

□ 다양한 정부 예산 프로젝트

- 평화협정 후 다양한 산업 개발 진행(교육, 의료, 인프라, 농업 등)
- 농업, 어업, 목축업 분야
 - 농업 대출 프로그램 확대로 농기계 수입이 증가할 전망
 - 이 외에도 어업, 목축업 등 다양한 분야 지원 예정
- 인프라(도로, 교육, 의료) 분야
 - 인프라, 교육, 의료의 경우 도로, 신설 학교 및 병원 건설 등으로 건축 관련 품목에 대한 수요 증가 전망
 - 특히 반군 점령지에서 해제된 지역 중 관광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 호텔, 요식, 교통, 카드 단말기 보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 또한 성장 추세
- 치안분야
 - 베네수엘라 난민유입 증가로 콜롬비아 정부는 국경지역 경찰 추가 배치, 단기 체류 비자 발급 중단 등 치안 유지에 적극적
 - 콜롬비아 소비자들의 CCTV 등 안전관리 용품에 대한 구매 관심 증가 추세
 - 한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주거·차량용 CCTV 설치 및 관리, 사설 경비 산업 등 성장 전망으로 관련 품목 수출 증가 기대

나. 제조업 활성화 정책에 따른 대응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스마트 제조업 프로그램 추진
 - * 콜롬비아 관광부가 제조 분야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 * 콜롬비아는 모든 분야의 제조기반이 열악한 상황으로 외국자본을 통해 제조기반을 확보 할 것으로 예상됨

□ 제조 분야 기업 지원

- 빅데이터, 3D 프린팅,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증강 및 가상현실, 로봇공학
 - 최신 기술을 활용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고 생산성과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한 ‘스마트 제조업(Manufactura Inteligente)’ 프로그램 추진 예정
 - 동 프로그램의 첫 단계로 정부가 40여개 기업을 선정하여 생산과정 및 적용가능 기술 분석비용 전액을 지원할 예정
 - 인공지능이나 증강 및 가상현실, 로봇공학 분야에 최신 기술을 보유한 한국기업의 진출 가능성 확대
 - 특히 증강 및 가상현실을 사용한 운전면허 취득·갱신 프로그램, 휴대전화·스마트 밴드를 이용한 구매결제 방식 플랫폼 등 현지의 시스템 및 관리 기술 부족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산업 분야를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음

다. 정권교체에 따른 경제 변화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2018년 7월 17일, 제60대 콜롬비아 대통령 선거 진행
 - * 60대 대통령 정부에 따른 경제/교역 시스템 변화

□ 이반 두케의 주요 공약에 따른 진출전략

- 빈곤 지역 인프라 정책
 - 빈곤 지역 인프라, 공공시설, 농업, 제조 산업 집중 개발 추진
 - 콜롬비아 산업 보호 및 산업 개발 정책 강화 시 현지 제조기업과의 협약 혹은 현지화 진행 필요
- 오렌지 경제
 - 오렌지 경제와 관련해 우리나라와는 스마트시티, 에너지 저장장치, 첨단의료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생명공학, 전자통관시스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이번 정부는 스마트 시티화에 관심이 많음
 - 위와 관련된 기기설계나 제조, 구축 및 관리 분야 산업이 매우 미미함

3. 한-콜롬비아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가. 전자조달시스템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공공기관 입찰정보 공고 시스템으로 쉬워지는 기업 입찰
 - * 콜롬비아 내 입찰 관련 부정부패 감소 기대
 - * 중소기업의 정부조달 참여 확대와 불필요한 서류작업의 간소화로 우리 기업 진출 가능성 증대

□ 부정부패 감소를 위한 전자조달 시스템 구축 의지가 강함

- 전자조달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한국 IT 중소기업 진출 유망
 - 한국의 경우 이미 관련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고, IT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인 관리 기술 보유
 - IT 시스템 구축과 기술 관리 분야에 한국기업 진출 기대
- 전자조달시스템 개발로 한국 중소기업들의 입찰 참여기회 확대
 - 단 1회 등록으로 국내기업이 모든 공공기관 입찰 가능
 - 한국기업의 현지화 및 법인 진출로 공공기관 입찰 참여를 통해 콜롬비아 진출과 사업 확장 가능

나. 정보통신기술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한국의 ICT 기술 전수와 개발
 - * 콜롬비아 관광부의 스마트 제조업 프로그램 추진으로 한국의 ICT 기술 산업 진출 가능
 - * 신정부의 오렌지 경제 현실화로 혜택을 받는 산업이 더욱 다양해 질 것.

□ 오렌지즙 짜기(Exprimiendo la naranja) 대출 프로그램 신설

- 오렌지 경제 실천의 첫 단계
 - 오렌지 경제를 현실화 전 단계로 문화, 예술, 제 4차 기술 혁명을 재정비하기 위한 준비
- 창조성이 주요 평가 부분
 - 위 프로그램은 창조성과 연관이 있는 사업을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활동 전개
 - 소프트웨어, 애니메이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개발, E-Learning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양성 교육, 스마트 홈 시스템, 스마트시티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 중인 한국기업 진출 가능

- 부족한 전문 양성 기관
 - 콜롬비아는 매년 소프트웨어, 애니메이션, 애플리케이션 분야의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전문 양성 교육기관이 없음
 - 오렌지 경제 활성화로 관련분야의 정부 지원이 더 확대될 것
 - 콘텐츠 개발양성 과정 등 한국기업들이 이미 보유한 다양한 기술 전수 기대

다. 테크노파크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한국의 혁신 성장 모델을 콜롬비아에 전수
 - * 인프라 구축, 비즈니스 환경 조성, 네트워크 구축으로 기업과 기관 간 교류협력 강화가 목표
 - * 하수처리,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등이 테크노파크의 주요 테마

□ 산업·에너지 공적개발원조 사업

- 한국의 성장모델을 콜롬비아에 전파
 - 테크노파크를 통해 한국의 하수처리기술, 에너지 발전·저장장치 등 수출과 기술 전수 기대
 - 현재 보고타에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의 일환으로 50여 대 하이브리드와 전기 택시 시범 운행 중. 전기 자동차 사업이 확대되면 한국의 전기자동차 산업 진출 가능
 - 특히 한국 브랜드의 자동차는 택시용으로 인식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기회를 통해서 하이브리드 차량 시장 선점과 이미지 탈피가 가능
 - OECD 가입 후 환경 관련 규제를 맞추기 위해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나 관련 기술 지식 및 인력 부족
 -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기업들의 지식전수나 인재 양정으로 진출 가능

라. 선박수리서비스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한국의 대표산업 중 하나인 선박 유지 및 관리기술을 콜롬비아에 전수
 - * 관련 분야 경쟁사 없음
 - * 해외기업들의 관심 부족과 콜롬비아 정부의 기술 및 인재 부족으로 틈새 공략 가치 충분.

□ 국제 선박유지 및 수리 서비스 협약 체결

- 한국의 우수 선박기술 수출
 - 2012년 미국-콜롬비아 FTA가 체결되었으며, 체결조건으로 국제 선박유지 및 수리서비스가 포함됨
 - 수출입을 위해 항구로 입·출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수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 내용
 - 관련 국내기업이나 전문인재가 전무한 상황이며, 해외 경쟁기업들의 관심 부족으로 사실상 해당 분야 경쟁사가 없음
 - 한국은 선박 제조 및 관리 기술 산업이 매우 발달한바, 미미한 관심을 기회로 한 틈새 공략이 필요

수출유망 품목

품목명 1	HS Code	852580	수입관세율(%)	0
 CCTV	수입액('17/US\$백만)	63	대한수입액('17/US\$백만)	0.2
	선정사유	아직까지 불안정한 치안문제로 인해 수요가 높은 제품		
	시장동향	치안 강화를 위해 길거리에 기능성 CCTV 추가 설치로 수요 증가		
	경쟁동향	중국과 대만 제품이 전체 수입의 71% 차지		
	진출방안	뛰어난 품질과 경쟁력 있는 가격이 필수		
품목명 2	HS Code	852580	수입관세율(%)	0
 차량용 블랙박스	수입액('17/US\$백만)	63	대한수입액('17/US\$백만)	0.2
	선정사유	잦은 교통사고와 안전 문제로 앞으로 수요가 크게 늘 전망		
	시장동향	작은 접촉 사고부터 대형 교통사고, 절도 등의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카메라 녹화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는 추세		
	경쟁동향	현재 판매되는 차량용 블랙박스는 중국산이 대부분이나 해상도가 매우 낮은 단점이 있음		
	진출방안	경쟁력 있는 가격과 고품질, 간단한 설치와 사용이 가능한 제품		
품목명 3	HS Code	8429	수입관세율(%)	0
 건설장비	수입액('17/US\$백만)	365.2	대한수입액('17/US\$백만)	21.2
	선정사유	건설경기 호황에 따른 수요 증가		
	시장동향	대형 인프라 건설 및 일반건설 증가로 수요 지속		
	경쟁동향	미국 점유율 33.4% 차지(중국, 브라질, 일본 등이 경쟁국)		
	진출방안	건설기업의 프로젝트 수주를 통한 패키지 진출 필요		
품목명 4	HS Code	7208	수입관세율(%)	0
 철강(평판압연)	수입액('17/US\$백만)	2556	대한수입액('17/US\$백만)	6.4
	선정사유	대형 인프라 건설 및 일반건설 증가로 수요 지속		
	시장동향	정부 주도의 건설 프로젝트 지원		
	경쟁동향	일본 점유율 51.7% 차지(러시아, 브라질 등 경쟁국)		
	진출방안	일본 자재 대비 품질 경쟁력 확보가 시급		
품목명 5	HS Code	8542	수입관세율(%)	0
 카드결제기	수입액('17/US\$백만)	36.5	대한수입액('17/US\$백만)	0.7
	선정사유	소비환경 변화와 관광객 유지를 위해 정부에서 카드 단말기 보급에 적극적		
	시장동향	은행들의 다양한 카드혜택과 사용량이 증가 추세이나 제조기반이 없어 100% 수입		
	경쟁동향	중국 점유율이 24% 차지(미국, 독일 등 경쟁국)		
	진출방안	對한국 수입규모 증가 추세. 애플리케이션이나 복합기능카드 등 단말기 결제수단 관련 산업 집중 공략		

문화 콘텐츠 전문가 양성과정	선정사유	한국의 문화콘텐츠 산업은 이미 큰 발전을 이루었으며 해당 분야에 좋은 본보기 될 수 있음
	시장동향	오렌지 경제 실행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한함
	경쟁동향	일본이 이미 문화와 캐릭터 사업 등 다양한 부분에서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되나 한류의 부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
	진출방안	문화 콘텐츠 개발 기업의 전문가 양성교육 및 전략 공유와 전수를 기회로 한 다양한 문화 수출
육아시스템 구축 전문 컨설팅	선정사유	한국은 이미 지역문화센터나 사설기관에서 임신부와 영유아를 위해 사회성 훈련, 체조, 마사지, 육아지식 등 다양하고 저렴한 교육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하지만 콜롬비아는 육아교육 시스템이 거의 전무하며, 미개발 분야라고 할 수 있음
	시장동향	정부는 오렌지 경제 실행의 일환으로 인재개발 및 양성 프로그램 지원 예정
	경쟁동향	육아교육 시스템이나 문화 프로그램이 거의 전무하고 몇몇 예술관이나 사립기관 등에서 이벤트성으로 특별 강좌 등이 있으나 가격이 비싸고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음
	진출방안	한국의 발전된 육아교육 시스템을 바탕으로 현지에 교육 프로그램 전문 컨설팅을 통해 교육 시스템을 구축, 또 육아전문가 양성교육을 통해 전문가 배출
어종양식전문가양성	선정사유	정부는 이전 반군점령지였던 폐쇄구역들이 평화협정으로 개방되면서 농어촌에 다양한 지원 예정
	시장동향	농업과 관련된 전문가는 있으나 어업양식 관련 전문가가 없어 전문양식장이 없음. 민물의 경우 대부분 고전방식으로 어업을 하므로 어획량이 일정치 않음
	경쟁동향	관련 분야 양성기관과 교육 프로그램이 없음
	진출방안	한국의 전문적인 어업양식 교육과 어업 관련 전문가 양성을 통해 전문가 배출
선박수리서비스	선정사유	콜롬비아는 선박유지 및 수리에 대한 국제 협약을 맺었지만 정비 서비스 사업에 대한 기반이나 지식이 부족
	시장동향	2012년 미국-콜롬비아 FTA 체결 시 해당 국제 협약을 체결하였음
	경쟁동향	해외 사업가들의 관심 부족으로 해당 사업 경쟁업체 없음
	진출방안	한국의 선박 제조 및 수리 기술을 강점으로 현지화 가능
산업기술 개발	선정사유	콜롬비아 산업은 성장하고 있지만 이를 더 강화하고 더 나은 제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의 생산방식이 필요
	시장동향	기술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지식과 심화된 기술이 필요하지만 콜롬비아는 아직 기술발전을 위한 환경이나 지원이 부족
	경쟁동향	섬유와 플라스틱 산업의 경우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기술이 부족. 이 부분에 컨설팅을 지원하는 외국기업이 전무함
	진출방안	제조, 생산에 대한 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한국기업을 중심으로 콜롬비아 회사 자문서비스 제공 및 기술교육



2019년 KOTRA 주요 사업 (잠정)

구분	주요 사업명	일시/장소
한-콜 FTA 활용	한-콜 FTA 활용 3주년 세미나	3분기/보고타
	지방도시 FTA 홍보 및 상담회	연중/메데진, 깔리 등
스타트업 진출 지원	유망 스타트업 샘플 쇼케이스	2분기/보고타
프로젝트 발굴	중앙정부 및 주정부 프로젝트(인프라, IT) 발굴	연중/콜롬비아 전역



첨부 4

2019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전시회 캘린더

□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지방 선거	2019. 10	-
국민해방군(ELN)과 평화 협정	2019	계획
세금 조세 개혁	2019	-

□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태평양동맹 관련국가 간 협상	2019	-
(잠정) 이스라엘-콜롬비아 FTA 체결	2019	-
(잠정) 일본-콜롬비아 FTA 체결	2019	-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	비고
국제 관광 산업 박람회	2019. 2. 27~3. 1	-
국제 건강 증진 산업 박람회	2019. 3. 29~31	-
국제 카리브해 공업 산업 박람회	2019.10. 3~5	-

자료원: Corferia(보고타 국제 비즈니스 전시장)

담당자

보고타 무역관 이종호

Tel +57-1-537-5099(102)

직책 관장

Email jhlee@kotra.or.kr

보고타 무역관 김다희

Tel +57-1-537-5099(112)

직책 현지

Email maya.kim@kotra.or.kr

보고타 무역관 Daniel Cano

Tel +57-1-537-5099(116)

직책 현지

Email daniel.cano@kotra.or.kr

2019 국별 진출전략

콜롬비아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